

과대광고... 형평성 논란... 바람 잘 날 없는 한남3구역

한남 삼국지(三國志)

(下) 현지 여론과 판세

현대건설·대림산업 양자대결 분위기 조용한 싸움 전개중인 GS건설 변수 대규모인원에 시공사 총회 장소 난항

‘수주전 삼국지’라고 불릴 정도로 전대미문의 시공권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았던 한남3구역의 재개발 아파트 수주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사실상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간 2파전 분위기 속에서 한남3구역 조합이 편파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이 건설사에 내린 경고 조치가 편향됐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vs대림산업 '2파전'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윈트 대안설계를 토대로 만든 CG 홍보물에 대해 ‘과대과장 광고’라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림산업의 대안설계에 대해 중대한 변경이나 경미한 변경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이의 없이 마무리됐지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조합은 앞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대건설이 자사 입찰 제안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로 개별홍보지침에 따른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인데 경고 조치 과정 및 시기적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나온 것이다.

당시 이사회 개최 및 경고 조치 결정까지 열흘 가량이 걸렸는데 대림산업의 경고 조치는 주말을 포함해 사흘 만에 내려졌다.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의 경고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용산구청으로부터

더 적법한 설계라는 공문이 18일 도착했다”며 “조합 측의 규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트윈트타워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설계로 도시정비사업법이나 건축법이 허용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경미한 변경이 적용된 대안설계 범위에서만 입찰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원안설계에서 과도하게 변경된 혁신설계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조용한 싸움을 전개 중이다. 현대건설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현대와 대림의 양자대결이 펼쳐지는 분위기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3사 중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않은 GS건설은 수주전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이 원하는 중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조합의 예정 공사비인 1조 8880억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할 것이라는 게 GS건설 측의 입장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의 대결구도 속에서 중장년층은 현대건설, 청년층은 대림산업을 지지하는 분위기다”라며 “현대건설은 홍보책자에 고(故) 정주영 명예회

장의 사진을 넣는 등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공사 총회 장소 변경

조용한 수주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장소변경으로 시공사 총회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21일 효창공원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코로나 방역 연장 관련 공공공원 및 공공시설 휴장’ 등으로 급하게 장소를 바꿨다.

지난달 말 강남구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진행했던 강남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과 3층 오디토리움으로 장소를 변경했지만 강남구청의 권고로 또 다시 장소가 바뀌게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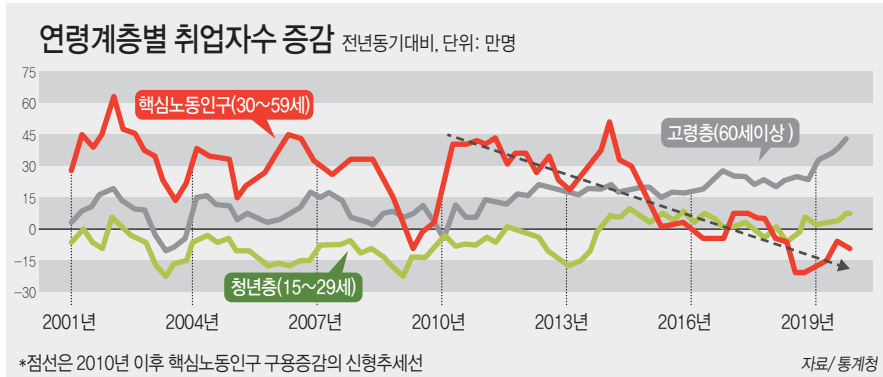
한남3구역은 조합원 수만 총 3880여 명으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성사되려면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워졌다.

워낙 대규모 인원이 모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대체장소를 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한남3구역전경.

/연합뉴스



30~50대 경제활동 위축에 한국경제 ‘휘청’

40대 고용 증가율 -2.1%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시급

우리나라 핵심노동인구인 30~50대의 고용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성장잠재력 약화, 노년부양 부담 증가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핵심노동인구의 고용회복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 요인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중 30~50대의 고용증가율은 -0.7%로 해당 연령대의 인구증가율(-0.6%)보다 낮아졌다. 이 중 40대의 고용증가율은 -2.1%로 인구증가율(-1.4%)을 밑돌았다.

2015년 이후 핵심노동인구의 고용증가율 하락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 둔화된 영향이 크다. 인구감소가 고용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 부진으로 2018년부터 하락 전환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비(非)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비율을 말한다.

우선 구직확률이 크게 낮아졌다. 30~50대 남성들의 취직률은 2010년대 들

어 빠르게 하락했다. 지난 2010년 45~50% 구간에서 머물렀던 취직률은 지난해 40% 미만으로 내려왔다.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산업, 직업 구조 변화로 남성들의 실직 비율이 늘어나기도 했다. 자동화 등으로 기능직 등 중·저숙련 직업군에 분포된 남성들이 자동화, 외주화로 실직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7~2019년) 30~50대 남성 노동자들이 비발적 사유로 퇴직한 비율은 2.4%로 직전 3년(2014~2016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학력이나 기술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로 구직 활동 단념 비중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30~50대 남성들의 비율은 직전 3년(2014~2016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비율은 5.0%포인트 올랐다.

인구구조나 실업률도 소폭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폭 축소나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는 핵심노동인구 고용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신��사 수탁고 1000조 육박 안전자산·퇴직연금형 증가

수탁고 전년말 대비 11% 증가 보험사 신�� 수탁고만 20.4조

지난해 신��상품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신��사 수탁고가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0개 신��회사(겸영+전업)의 총 수탁고는 9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95조1000억원(10.9%) 증가했다.

신�� 수탁고는 은행 480조4000억원, 증권사 237조2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45조3000억원(10.4%), 28조4000억원(13.6%) 늘었다. 부동산신��사의 수탁고 역시 230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3조8000억원(11.5%) 증가했다.

보험사의 신�� 수탁고만 20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4000억원(10.5%) 줄었다.

신��재산별로는 금전신��이 483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6조6000억원(10.7%) 증가했고, 특정금전신��이 467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산신��은 484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8조4000억원(11.1%) 늘었

다. 부동산신��과 금전채권신��이 각각 285조8000억원, 194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품별로는 파생결합펀드(DLF) 상태 등으로 안전자산 위주의 신��계약이 늘었다. 은행은 파생증권형·주식형 신��의 수탁고가 각각 3조3000억원, 1조원 감소한 반면 안전자산인 수시입출금식·정기예금형신��의 수탁고는 각각 4조원, 2조원 증가했다.

증권사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성격의 정기예금형 신��이 18조1000억원 늘었다.

부동산신��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토지신�� 사업장의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사업장 부실로 부동산신��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신��보수는 총 2조32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4억원(6.5%) 증가했다. 겸영신��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의 보수는 특정금전신�� 비중이 88.9%며, 부동산신��사의 보수는 토지신��이 80.5%다. /안상미 기자

<신��회사별 수탁고 추이>

(단위:조원)

구분		'18년말(A)	'19년말(B)	증감(B-A)	
				증감률	
경영사	은행	435.1	480.4	45.3	10.4%
	증권사	208.8	237.2	28.4	13.6%
	보험사	22.8	20.4	△2.4	△10.5%
	소계	666.7	738.0	71.3	10.7%
부동산 신��사		206.8	230.6	23.8	11.5%
합계		873.5	968.6	95.1	10.9%



‘KB 알버트’ 금융특화 한글 자연어 학습모델

KB국민은행은 금융에 특화된 한글 자연어 학습 모델인 ‘KB 알버트(ALBERT)’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KB 알버트는 어려운 금융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최신 딥러닝 언어 모델인 알버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KB국민은행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구글 클라우드, 메가존과 협력해 인공지능(AI)·머신러닝(ML) 기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KB 알버트를 개발했다.

KB 알버트는 금융 관련 텍스트의 특수성을 고려해 KB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약 1억 건 이상의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업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 적용됐다.

KB국민은행은 KB 알버트를 KB스타뱅킹과 업무용 챗봇 등에 도입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 및 핀테크 회사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공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글 클라우드, 메가존과 기술 협력을 지속해 금융과 IT를 융합한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AI·ML 및 데이터 관련 업무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